

## 대덕클럽 토론

이 춘 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덕클럽 발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성현 원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방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니, 연구 시점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과제들도 대부분 현실성이 있어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발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실진단과 이슈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남북협력과 통일 이슈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정부조직이 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면서 행정조직이 축소되었고,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도 10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TEPI를 제외하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원들의 북한 연구와 전문가 네트워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북한 연구도 DMZ평화공원, 자원, 인도적 지원 등의 타 부처 대형 이슈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과학기술계의 이슈 주도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2. 주요 과제와 건의에 대한 소견입니다.

제안하신 과제 중 많은 것들을 현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통일부에서 관련 연구 보고서 수백권을 DB화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원장님 보고서도 여기에 포함시켜 활용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DMZ평화공원 내에 설치하자고 하신 것은 과거의 논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는 북한 과학원과 STEPI가 협정을 맺어 평양에 설치하려다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DMZ도 논의되었으나 북한 과학원에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 3.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경제분과 소속입니다. 8월 7일 회의에서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경제분과에서 수행중인 과제에 “남북 IT/지식산업”이 있고 제가 책임을 맡고 있고요. 여타 과제에는 북중러 다자간협력, 민생 인프라, 특구 지원, 철도 연결, 탈북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법제 등의 다른 분과에서 추진 중인 과제에 DMZ 생태공원, 산림녹화, 농업, 의료, 보건 등이 있고, 여기에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 준비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과제 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4. 제가 생각하는 정책 대안입니다.**

저는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건의하였고 곧 실행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계획과 과학원, 대학 등에 대한 동향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STEPI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것이 채택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때 관련부처와 학계, 언론계, 통일준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분단 70주년 행사들을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